

돌보는 사람들을 기르는 커먼즈-짓기: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보는 노동과 돌봄

디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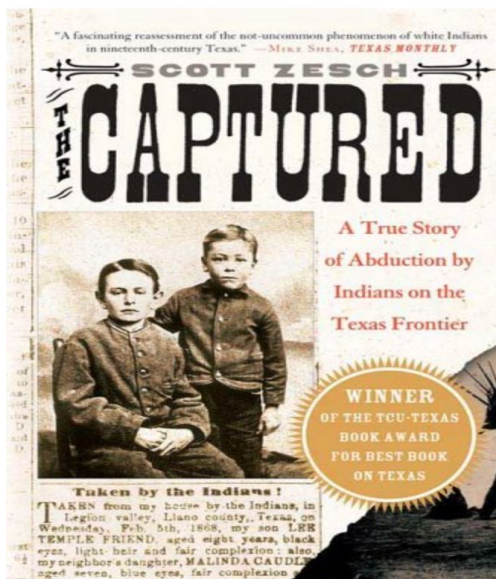
돌봄을 통한 사회전환?

- 팬데믹이 드러낸 세계의 근원적 상호의존성
- 다중위기 속 돌봄의 위기
- 돌봄을 통한,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전환의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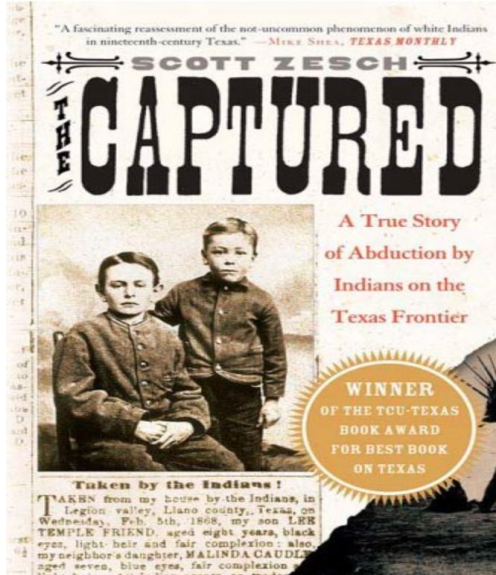
돌봄을 통한 사회전환?

- 팬데믹이 드러낸 세계의 근원적 상호의존성
 - 다중위기 속 돌봄의 위기
 - 돌봄을 통한,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전환의 요청
-
- 트론토(Tronto): '경제적 인간(Homo Economicus)'을 거부하며, 인간을 '돌보는 사람들(Homine Curans)'로 볼 것을 제안

돌보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



돌보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



왜 백인도, 인디언도 문명을 혐오하고 탈출할까?

- 성적자유, 이동의 자유, 적은 노동
- 외부인에 대한 포용성 (백인이 추장이 된 경우들)
- 사회적 유대의 강렬함, 상호돌봄의 안정성
- 다른사람의 빈곤을 꺼리는 인디언의 특성

돌봄을 통한 사회전환?

- 팬데믹이 드러낸 세계의 근원적 상호의존성
- 다중위기 속 돌봄의 위기
- 돌봄을 통한,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전환의 요청
- 트론토(Tronto): '경제적 인간(Homo Economicus)'을 거부하며, 인간을 '돌보는 사람들(Homine Curans)'로 볼 것을 제안
 - 인간은 어떻게 경제적 인간이 되거나 돌보는 사람들이 되는가?
 - 커먼즈를 통해, 그리고 노동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기

돌봄이란 무엇인가?

- 돌봄은 범주화된 활동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“우리의 ‘세계’를 유지하고, 지속하고, 복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” (Fisher and Tronto, 1990)
 - 노동(삶을 지속하기 위한 신진대사의 활동)과 구분되지 않음

돌봄이란 무엇인가?

- 돌봄은 범주화된 활동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“우리의 ‘세계’를 유지하고, 지속하고, 복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” (Fisher and Tronto, 1990)
 - 노동(삶을 지속하기 위한 신진대사의 활동)과 구분되지 않음
- 돌봄은 노동인가? 노동이 아닌가? 특정노동만이 돌봄이라면 돌봄을 필요로하지 않는 노동이 있는가?

돌봄이란 무엇인가?

- 돌봄은 범주화된 활동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“우리의 ‘세계’를 유지하고, 지속하고, 복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” (Fisher and Tronto, 1990)
→ 노동(삶을 지속하기 위한 신진대사의 활동)과 구분되지 않음
- 돌봄은 노동인가? 노동이 아닌가? 특정노동만이 돌봄이라면 돌봄을 필요로하지 않는 노동이 있는가?
- 돌보다 = 돌아보다,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(표준국어대사전)
돌봄(cūra): 관심, 염려, 생각, 걱정, 근심, 슬픔은 물론 주의, 경영, 관리, 작성, 치료, 양육, 보호, 관심, 경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(필수적 활동으로서의) ‘하다’에 해당함

돌봄이란 무엇인가?

- 돌봄은 범주화된 활동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“우리의 ‘세계’를 유지하고, 지속하고, 복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” (Fisher and Tronto, 1990)
→ 노동(삶을 지속하기 위한 신진대사의 활동)과 구분되지 않음
- 돌봄은 노동인가? 노동이 아닌가? 특정노동만이 돌봄이라면 돌봄을 필요로하지 않는 노동이 있는가?
- 돌보다 = 돌아보다,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(표준국어대사전)
돌봄(cūra): 관심, 염려, 생각, 걱정, 근심, 슬픔은 물론 주의, 경영, 관리, 작성, 치료, 양육, 보호, 관심, 경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(필수적 활동으로서의) ‘하다’에 해당함
- 돌봄: 근본적으로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“인간이 세계를 유지하고, 지속하고, 복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” 활동, 즉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활동인 노동으로서의 ‘살림 (enlivenment)’, 혹은 마르크스가 ‘산노동(living labour)’이라고 부른 구체적 노동에 깃든 태도

서로 다른 생산양식으로서의 커먼즈와 자본주의

- 대부분의 사회에서 집이나 카누와 같은 물건의 생산은 언제나 사람들을 생산하는 더 큰 과정의 일부로 여겨진다. (데이비드 그레이버)
- 생산양식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명확한 형태이다 (맑스와 엥겔스)
- 신진대사(metabolism)로서의 커먼즈: 생명과 진화의 원리 (다마지오); “생명이 생태계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관계망”, “살림(enlivenment)”을 위한 풍요로운 생태=경제 시스템 (안드레아스 베버)
- 자본주의는 커먼즈의 **인클로저/상품화** 를 통해 시작되는 생산양식
→ 다양한 형태의 공유지는 물론 인간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바꿈

서로 다른 생산양식으로서의 커먼즈와 자본주의

커먼즈의 노동

- 구체적, 맥락적, 관계적인 신진대사의 활동, 산노동(living labour)
- 생산물: 다양한 질적가치, 물질적이고 정동적인 잉여, 그 잉여를 나누는 인프라스트럭처(인간의 심성과 공동체, 다양한 공유지를 포함한 커먼즈)
- 목적: 삶의 활성화, 살림(enlivenment),

자본주의의 노동

- 추상화/상품화된 노동력, 소유와 교환의 과정으로 축소된 죽은노동
- 생산물: 화폐로 환원되는 교환가치(자본)
- 목적: 이윤생산

살림(enlivenment)의 노동/산노동이 구성하는 커먼즈

- “철은 녹슬고 나무는 썩는다. 산노동(living labour)은 이러한 것들을 붙잡아 죽음의 잠에서 깨운다.” (마르크스)
- 신진대사=타자와의 연결: “생명의 피할 수 없는 혼란, 갈등들, 잘못된 타이밍, 부족함들”을 동반함. “자아와 타자, 전체의 선과 자신의 웰빙, 용기와 황홀” 사이에서 지속적인 “협상과 조정의 규칙들이 배양되어야 한다” (베버)
- 추상화되지 않은 질적 노동: 산노동/살리는 노동 → 상호연결의 감각; 노동의 과정에서 돌봄의 태도 배양 → 돌보는 인간의 생산

소유/교환하는 노동을 통해 수행되는 자본주의.

- 자본주의는 인클로저(enclosure)와 함께 시작: 처분 가능한 ‘소유물(상품)’이 된 토지와 노동력

소유/교환하는 노동을 통해 수행되는 자본주의.

- 자본주의는 인클로저(enclosure)와 함께 시작: 처분 가능한 '소유물(상품)'이 된 토지와 노동력
- 자본주의적 소유의 기원: 노예제 → 누군가를 처분/교환가능한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"그 사람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상호약속과 공통의 역사, 집단책임의 망에서 송두리째 뽑아내야한다" (그레이버)

소유/교환하는 노동을 통해 수행되는 자본주의.

- 자본주의는 인클로저(enclosure)와 함께 시작: 처분 가능한 '소유물(상품)'이 된 토지와 노동력
- 자본주의적 소유의 기원: 노예제 → 누군가를 처분/교환가능한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"그 사람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상호약속과 공통의 역사, 집단책임의 망에서 송두리째 뽑아내야한다" (그레이버)
- 이중의 뿌리뽑음/인클로저
 - 땅과 숲, 강과 바다를 그것이 속해 있고 그를 통해 활성화되던 관계망에서 뽑아냄으로써 "텅비고 무력한 것으로서의 자연 그 자체" 만들기 (발 플럼우드)
 - 사람들을 커먼즈의 관계망으로부터 뜯어냄으로써 스스로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가는 독립적 개인 만들기. "이러한 독립성은 환상에 불과하며, 차라리 무관심이라고 불러야 한다 ... 상호의존은 지속적인 교환의 필요로만 표현"된다. (마르크스)

소유/교환하는 노동을 통해 수행되는 자본주의.

- 자본주의는 인클로저(enclosure)와 함께 시작: 처분 가능한 '소유물(상품)'이 된 토지와 노동력
- 자본주의적 소유의 기원: 노예제 → 누군가를 처분/교환가능한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"그 사람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상호약속과 공통의 역사, 집단책임의 망에서 송두리째 뽑아내야한다" (그레이버)
- 이중의 뿌리뽑음/인클로저
 - 땅과 숲, 강과 바다를 그것이 속해 있고 그를 통해 활성화되던 관계망에서 뽑아냄으로써 "텅비고 무력한 것으로서의 자연 그 자체" 만들기 (발 플럼우드)
 - 사람들을 커먼즈의 관계망으로부터 뜯어냄으로써 스스로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가는 독립적 개인 만들기. "이러한 독립성은 환상에 불과하며, 차라리 무관심이라고 불러야 한다 ... 상호의존은 지속적인 교환의 필요로만 표현"된다. (마르크스)
- 자본주의: 소유와 교환을 통해 살아가는 독립적/고립된 개인을 생산 → 불안정성, 이익의 추구

돌보는 사람들을 생산하는 커먼즈-짓기

- 노동이란 결국 세계의 일부인 우리가, 우리 스스로를 포함한 세계를 특정하게 (재)생산하는 행위
- 상품화된 노동이 생산한 고립된 개인, 각자도생의 시장, 돌봄과 생태의 위기
- 커먼즈의 영역을 늘리기
- 커먼즈에서 확장되는 돌봄의 역량: 돌봄은 타자의 상태와 필요를 감응하고 이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능력이며, 그러한 역량은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, 돌보고 돌봄을 받는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경험 속에서만 자라난다